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초등학생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학급임원 선거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s in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 Focused on the Class Chair Election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강 창 훈



초등학생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학급임원 선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원 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강 창 훈

강창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최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그것이 지향해야 할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합의된 관점이 부재함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그것과 관련하여 갈등하는 모든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합의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주권자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정당성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난맥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 헌법이 선포하는 주권자로서의 시민 개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모든 입장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권자 교육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최소공통요소로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성찰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 시민의 의사결정 행위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전통적 규칙을 답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민 간의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권자 교육을 실천할 때,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 과정은 쉽사리 생략되고 만다. 매 학기 이루어지는 학급 임원선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급임원 선거는 학생들에게 투표의 장으로서 기능할 뿐, 공론의 장으로서는 그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학급임원 선거를 중심으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실천하고, 그것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고

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고, 그에 대한 답을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추론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 학급임원 선거를 실천한 수박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 참여를 희망한 사례 학급의 담임교사와 열네 명의 초등학생들과의 심층 면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선거 참여의 성격과 투표의 기준에 따라 두 가지 학급임원 선거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에서는 순응적·소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실질적인 기준 없이 인기 등에 의해 투표를 했었던 반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서는 주체적·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학급임원은 특권의식이 없어야 하며 동료 학생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학급의 반성적 성찰 결과를 투표의 기준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학급임원 선거에서의 반성적 성찰 결과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성적 성찰 과정에서 경험한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긍정하는 상호존중을 실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급임원은 특권의식을 버리

고 봉사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며, 전체적이고 통제적인 말하기 방식 대신 권유하고 부탁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일반 학생들은 학급 임원에 대한 반발적 태도를 버리고 그들을 더욱 공적인 존재로 인정하여 학급임원들의 요청을 더욱 잘 수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변화되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학급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봄으로써, 초등학생들은 인지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주권자로 자각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정의적 측면에서 정치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이 보인 행동적 변화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천적 맥락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권자 교육에 대한 성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맥락에서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민주시민교육과 주권자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주권자 교육, 반성적 주권자 교육, 학급임원 선거, 주권자 의식,  
정치적 판단력

**학번** : 2020-27170





# 목 차

I . 서론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 문제 및 연구 질문 .....	4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5
II . 이론적 배경 .....	8
1. 초등학생과 주권자 교육 .....	8
2.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에서의 주권자 교육 .....	11
3.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에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의 필요성 ..	13
4. 선행연구 개관 .....	18
III . 연구 방법 .....	23
1. 연구 방법의 개관 .....	23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25
3. 연구 참여자 특성 및 윤리적 고려 사항 검토 .....	33
IV . 초등학생의 학급임원 선거 간 차이에 대한 인식 .....	35
1. 선거 참여의 성격:	
순응적 · 소극적 정치참여 vs 주체적 · 적극적 정치참여 .....	35
2. 투표의 기준:	
실질적인 기준의 부재 vs 학급의 자율적 규칙 .....	44

V. 초등학생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 참여 경험에 따른 행동 변화 .....	53
1. 자기조절적 행동의 실천 .....	53
2.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상호존중의 실천 .....	60
VI. 논의 및 결론 .....	67
1. 논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따른 주권자 의식의 변화 .....	67
2. 요약 및 제언 .....	74
참고문헌 .....	80
Abstract .....	84

## 표 목 차

<표Ⅱ-1> 본 연구에서 주권, 주권자, 주권자 교육의 일차적인 의미 .....	9
<표Ⅱ-2> 아렌트가 설명하는 정치적 판단력의 구조 .....	16
<표Ⅱ-3> 정치적 판단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	17
<표Ⅱ-4> 반성적 주권자 교육 맥락에서 주권, 주권자, 주권자 의식의 의미 ..	18
<표Ⅱ-5>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	20
<표Ⅲ-1>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계획 .....	27
<표Ⅲ-2>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	29, 30
<표Ⅲ-3> 연구 참여자 정보 .....	34
<표Ⅳ-1>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 참여 절차 .....	39
<표Ⅴ-1>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통한 상호존중의 실천 ..	62
<표Ⅵ-1> 초등학생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주권자 의식의 변화 .....	71



# I. 서론

## 1. 문제 제기

202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매일같이 자신들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토론과 공방을 통해 상대방의 정책과 도덕성을 검증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그러한 노력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국민은 어떤 통치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일원화된 답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견(異見)들이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표결(票決)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거가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러 정치적 의제에 대해 공의를 모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거의 공론장(公論場)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가령, 국민은 현재의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공정이

란 무엇인가?’ , ‘성장과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공의를 모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넓은 관점에서 특정 후보의 도덕적 결점, 가족들의 윤리적 결함 등의 문제들도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단순한 공박이기보다 이러한 공론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거에 임하는 대다수 국민의 실질적 관심은 여러 후보자 중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후보자의 당선 여부는 유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선거가 단순한 투표 행위로서의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인민 주권의 원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선거를 투표의 행위로 좁게 해석할 때, 선거는 주권자들 간의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후보자 및 진영 간 대결의 장으로만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패의 대결 구도 속에서 낙선자를 지지했던 국민의 정치적 의지는 사표(死票)가 되는데, 우리는 낙선자에게 표를 던진 국민도 여전히 공화국의 주권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학교에서 매 학기 초 주권자 교육으로 실천하고 있는 학급임원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권 행사 방법을 학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급임원 선거는 투표 행위 그 자체에 매몰되어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급임원 선거의 일반적인 절차에는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생각을 모아보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에, 학급임원 선거를 실시한 이후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의 학급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거야.’ 와 같은 희망을 품기보다, ‘누가 당선됐고, 누가 떨어졌어.’ , ‘당선자와 낙선자는 불과 몇 표 차이에 불과했어.’ 와 같은 승패로서의 선거 결과를 기억할 뿐이다.

이러한 선거 양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원으로 당선된 학생을 전경으로 삼아 주목하고,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하였던 일반 학생들을 배경으로 삼아 소외시킨다는 점이다. 그러한 문제점은 학급에서 관찰되는 학급임원과 일반 학생들 사이의 위계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타난다. 학급임원이 일반 학생들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학급임원 선거는 주권자 교육의 명목으로 실시되나, 주권자 교육이 추구하는 정반대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 학생들에게 투표 행위에 대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공론(公論)에 참여하여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려보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급임원 선거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학급임원을 선출할 것인가?’, ‘우리 반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학급임원은 반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반성적 성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공동의 성찰 결과가 실제 투표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선된 임원만이 모든 주목을 받고 유권자인 일반 학생들은 소외되었던 기존의 학급임원 선거의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 과정을 포함하는 학급임원 선거를 실시한 수박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을 연구 사례로서 주목하였다. 그리고 사례 학급 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문제 및 연구 질문

본 연구는 수박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의 사례를 통하여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한 초등학생의 주권자 의식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초등학생들이 기존의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를 수차례 경험하였으며, 본 연구에의 참여에 앞서 새로운 학급임원 선거의 방법으로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들로부터 인식하는 각 학급임원 선거에 대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그러한 경험이 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에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주목하였다. 연구자는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언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행동 변화를 그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가시적 행동 변화를 통해 그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추론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초점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초등학생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에 따른 주권자  
의식 변화는 어떠한가?

◇ 연구 질문 ①: 초등학생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  
는가?

◇ 연구 질문 ②: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 질문 ①은 본 연구의 IV장에서, 연구 질문 ②는 V장에서 답하여질  
것이다. 초등학생의 주권자 의식 변화는 IV장과 V장의 내용을 통해 추론한  
결과로서 VI장에서 밝혀질 것이다.

###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주권자 교육을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라는 교육의 실제  
를 통하여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권자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정원규 외, 2019)는 문헌연구의 형태로서 주권자 교육을 이론적 및 철학적  
으로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의 실제 사례를 관찰하고  
그것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경험을 단서로 하여 그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 본 연구는 주권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  
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 일반의 교육활동인 학급임원 선거를 주제로 하고

있기에 연구의 실천적 확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사례 학습의 고유한 맥락을 담고 있기에 일반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학급임원 선거는 학교 일반이 시행하는 보편적인 학생 자치 활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전이성(transferability)의 측면도 지닌다고 할 수 있기에, 타학급, 타학년, 타학교의 학급 임원 선거에서도 충분히 참고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급임원뿐만 아니라 학급임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에도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박가나, 2001; 김영현, 2020; 황미영, 2020; 이정순, 2007; 신정아, 2005)들은 주로 학급임원 경험이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학급임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에는 소홀한 편이었다. 반면 본 연구는 학급임원과 일반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따른 학생 일반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학교에서 주권자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학생들의 성찰 활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권자 교육은 주로 학생들의 의사결정 활동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할 때가 많다. 그리고 반성적 성찰 과정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급임원 선거를 비롯한 현재의 주권자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성찰 활동을 절차적으로 생략할 때가 많다. 따라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주제로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권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성찰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참여 관찰의 횟수와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

기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참여 관찰을 실시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제한적 연구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수박초등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번갈아 시행하고 있었으며, 연구자의 학급 출입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그동안의 교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심층 면담 과정에서 증언한 바를 학교 현장에 대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사례 학급의 독특하고 특수한 맥락을 최대한 살리고자 한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초등학생과 주권자 교육

주권자 교육은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주권자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에 주권을 행사해보는 경험을 가져봄으로써 주권자적 인간<sup>1)</sup>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주권자 교육은 주권이 무엇이며, 주권자는 누구인가를 검토해봄으로써 심도 있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일의적이지 못하며,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권의 개념은 그것을 공화국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으로 정의한 프랑스의 법학자 장 보댕(Jean Bodin, 1529/1530-1596)으로부터 출발하여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왔다.<sup>2)</sup> 이처럼 주권 개념이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까닭은 그것이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조소영, 2014: 27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

1) 강경선(2016: 210-211)은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격을 전제로 하는 인간형을 ‘주권자적 인간(sovereign person)’으로 일컬었다. 강경선(2016)은 주권자적 인간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라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개의 가치를 통일적으로 달성시키는 민주주의의 실현자로 설명한다.

2) Bodin, J. (1576). *Les six livres de la Republique*. 나정원 역.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파주: 아카넷.

있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로 이해하고 있음은 논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김명재, 2006: 88). 주권 개념의 핵심적 징표를 대외적 관계에서의 독립성과 대내적 관계에서의 최고성을 확보한 ‘의사결정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권영성, 2005: 134).<sup>3)</sup>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주권을 ‘의사결정권’으로, 주권자를 ‘의사결정자’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은 그것이 비록 주권 그리고 주권자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핵심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주권자 교육의 의미는 주권을 의사결정권으로, 주권자를 의사결정자로 바라보는 본 연구의 시각을 통해 ‘정치적 판단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주권의 행사를 의미하는 의사결정 행위는 행위 주체의 사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주권자 교육을 통해 정치적 판단력을 함양함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사회의 주권자로 성장하게 된다. <표Ⅱ-1>은 본 연구가 상정하는 주권, 주권자, 주권자 교육의 일차적인 의미를 정리한 결과이다.

<표Ⅱ-1> 본 연구에서 주권, 주권자, 주권자 교육의 일차적인 의미

주권	의사결정권
주권자	의사결정자
주권자 교육	주권자의 정치적 판단력 함양 교육

주권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여타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학습 대상의 발

3) 대외적으로 독립됨은 국가가 그 의사를 형성·결정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외부의 권력 주체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음을 의미하며, 대내적으로 최고임은 어떤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최고의 권력임을 의미한다(정중섭, 2014: 123).

달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인지발달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발달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학습 과제는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기보다 감각적이거나 구체적인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자 교육이 학생들이 정치적인 것이라 여기는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윤경·이승연(2015)은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일상성을 담보한 문제들을 정치적 이슈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위한 주권자 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생활 정치(life politics)와 관련된 것 이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정치교육 학자인 힘멜만(G. Himmelmann)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볼 만하다. 힘멜만은 민주주의를 생활형식, 사회형식, 통치형식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그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형식과 통치형식보다 생활형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immelmann, 2002; 허영식, 2006: 48에서 재인용).

또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주권자 교육은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만일 주권자 교육에서 추상화된 이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면, 교육의 내용이 초등학생들의 내면에 의식화(encoding)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권자 교육에서 초등학생의 참여 활동은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

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는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탈중심적으로 사고를 시작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정승희·용주현, 2013: 26).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주권자 교육 참여 활동은 초등학생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성찰하고, 개인의 자주성과 공동체 의식을 동시에 함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2.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에서의 주권자 교육

학급임원 선거는 학생들 스스로 학급의 대표를 선출해보는 교육활동으로서 주권자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급임원 선거를 주권자 교육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전술한 초등학생의 발달 특징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학급임원 선거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정치적 주제이며, 학생들이 실제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교육의 방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학급임원 선거가 주권자 교육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주권자 교육으로서 학급임원 선거는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이해 및 실천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학급임원 선거의 목적은 자치활동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초등학교의 자치활동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이해 및 실천” 하는 것을 교육의 중점으로 한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총론의 서술(교육부, 2015)과 학교 현장에서 자치활동은 크게 학



급임원 선거와 협의활동(학급회의, 전교회회의)으로 구성된다는 구체적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연역적 추론의 결과이다.

따라서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원리를 이해 및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투표를 통한 다수결 원칙’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학생들이 투표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 시민은 주로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급임원 선거를 바람직한 투표 행위에 대한 교육으로 좁게 해석할 때에는 ‘투표의 방법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충분하게 설명하는가’,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성을 훼손하지는 않는가’, ‘바람직한 투표 행위에 대한 학습이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키는가’ 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투표의 방법은 그러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됨이 일반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4)</sup> 이를 통해 투표의 방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의 특수한 형태이지, 보편적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배제함으로써 다수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주권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다수결의 원칙

---

4) 두세 사람이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공동의 식사 메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어느 한 사람이 한 가지 음식을 제안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기피하지 않아 수용하는 방식, 어느 한 사람이 몇 가지 음식을 제안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중 한 가지를 최종 선택하는 방식 등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식사 메뉴 선정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 극심한 경우 다수결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결과 유쾌하게 식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은 결과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비판될 수 있는데, 정치적 판단의 근거를 득표수에 한정할 경우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이 사장되어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학급임원 선거 경험이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함양하는 데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급임원 선거에서 학생 간의 인기를 중요시한다고 밝힌 김지훈(2014)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급임원 선거가 인기투표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해내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판단력은 단순히 여러 후보자 중 한 사람을 선별해내는 능력으로 축소될 수 없음을 밝힌다.

### 3.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에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의 필요성

반성적 주권자 교육이란 학생들 스스로의 반성적(reflective) 활동을 포함하는 주권자 교육의 형태를 말한다. 반성이란 어떠한 준거에 비추어 대상을 성찰(省察)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과 타자의 존재가 요청된다. 따라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은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거나, 정해진 절차를 답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주권자 교육으로서 학급임원 선거는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데, 대화와 토론을 통한 반성적 성찰 과정 그 자

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의 핵심 문제는 개별 주권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주권자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치적 의제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구성할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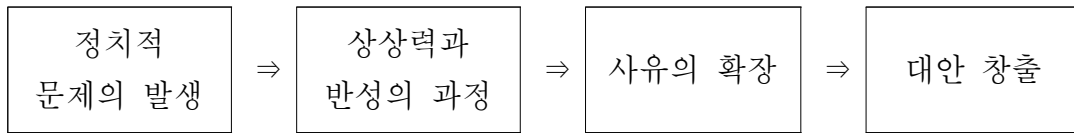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한 본 연구의 관점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사회계약론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루소는 개인을 자유의지를 지닌 주권적 존재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삶을 둘러싼 정치 문제를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주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개인의 모든 개별 의사를 사회의 주권적 의사로 간주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이견으로부터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그들로부터 형성된 통일성 있는 전체를 통하여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전체를 구성한 후에도 여전히 자유로운 주권적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루소 사회계약론의 실천적 관심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울어져 있다. 루소는 그의 사회계약론을 통해 주권자 개인이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타자에게 양도함 없이 사회적으로 결합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김명재, 2006: 93). 이러한 루소의 사상적 관심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확인된다. “각 개인이 전체로 결합되었으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Rousseau, 1762/1999: 19; 정원규, 2016: 221)?”

루소는 ‘일반의지(general will)’ 개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루소는 다수결 원칙을 통해서도 개인이 여전히 자유로운 바람직한 전체의 모습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이 다수결 원칙에 복종해야 함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에 복종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이 다수결 원칙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루소는 모든 권리와 절차의 시행 이전에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일반적인 합의 내용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의지이다(정원규, 2016: 131). 이러한 일반의지는 결사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가 상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정치적 판단력’의 개념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정치적 판단력에 대한 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아렌트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한 ‘취미 판단’ 개념을 활용하여 정치적 판단력을 설명하였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정치적 판단력이란 개별자를 개별자 자체로서 인정하면서 개별자 간의 소통을 통해 조화로운 대안을 형성해 나아가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즉, 정치적 판단력은 당면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그들 간의 상상력과 반성의 과정을 통해 사유의 확장을 이루어, 공공성 있는 대안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Arendt, 1982/2002; 장원순, 2007: 113-117).

<표 II-2> 아렌트가 설명하는 정치적 판단력의 구조



아렌트의 정치적 판단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치적 판단력은 정치적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성찰적 과정으로 향상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 교육으로서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학급임원 선거는 관련 의제에 대한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절차적으로 포함하여 학생들이 그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할 수 있도록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학급임원 선거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장원순(2007: 117-121)은 교육적 목표로서 정치적 판단력을 “아동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이를 기반하여 공공성(publicity)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sup>5)</sup> 더 나아가 장원순(2007)은 그의 연구에서 정치적 판단력을 형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반성적 주권자 교육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엿볼 수 있다.

5) 장원순(2007)은 정치적 판단력의 다섯 가지 하위 요소로서 ① 타인들과 생각과 의견, 주장들을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② 타인들의 의견과 생각, 주장들을 왜곡 없이 재현해 내는 능력 ③ 자신의 생각과 타인들의 생각 그리고 타인과 타인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이들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반성능력 ④ 개별적인 입장을 떠나 전체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확장된 심성 ⑤ 서로 이질적인 생각들과 주장들의 조화를 모색하고 형성할 수 있는 미학적 능력을 제시하였다.

<표 II-3> 정치적 판단력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단계	유치원-3학년	4학년-6학년
1	참여하라	정치참여를 선택하고 문제를 기술하라
2	잘 들어라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말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어라
3	말하라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라
4	이유를 말하라	당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이유와 증거들을 제시하라
5	이름을 부르지 마라	사람이 아닌 아이디어에 도전하라
6	테스트하라	대안들을 테스트해보라
7	함께 하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해결책에 포함시켜라

\* 출처: 장원순(200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서 주권 및 주권자의 의미는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즉, 주권의 의미는 의사결정권이라는 포괄적 의미로부터 ‘정치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며, 주권자의 의미는 의사결정자라는 단순한 의미로부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유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의 의미로 심화된다.

또한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서의 주권 및 주권자의 의미는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는 주권자 의식의 개념을 ‘자신과 공동체의 삶에 결부된 정치적 상황에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관여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대안을 내리고 그것을 준수하고자 하는 내면적 태도’로 명료화해준다. 반성적

주권자 교육은 학생들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판단력을 지닌 민주사회의 주권자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인 것이다.

<표Ⅱ-4> 반성적 주권자 교육 맥락에서 주권, 주권자, 주권자 의식의 의미

주권	정치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주권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유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
주권자 의식	자신과 공동체의 삶에 결부된 정치적 상황에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관여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대안을 내리고 그것을 준수하고자 하는 내면적 태도

요컨대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의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선거의 과정 속에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성찰 활동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정치적 판단력을 함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학급임원 선거는 후보자들 간의 대결을 통한 승패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잠정적인 합의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 4. 선행연구 개관

주권자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정원규 외, 2019)는 주권자 교육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목표로서 설정하고 있다. 주권자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민주시민교육과 그 배경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하는 ‘주권자로서의 시민 개념’은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개념에 대한 진술들은 주권자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수 목표가 됨을 뒷받침한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의됨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교육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 교육은 그것이 지니는 민주시민교육적 의미에 따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가령, 이쌍철(2019)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기능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사회에 적용하는 주권자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정원규 외(2019) 역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학생들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으로 정리하고 있다. 교육부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21).

같은 맥락에서 주권자 교육은 우리나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설규주·정원규(2020)는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Consensus)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을 제안하였는데, 그들이 제안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내용, 방



법, 평가의 정당 근거에는 주권자 교육의 관점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

<표Ⅱ-5>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원칙	관련되는 교육과정 요소	정당 근거
학습자 자율성 제고	목표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목표로서 주권자 교육 이념 반영
논쟁성 재현	내용	기계적 중립이나 균형으로 인한 중요한 쟁점 배제 및 학습 공백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자율적 판단 역량 제고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	방법	학습자가 스스로를 주권자로 자각할 기회와 공동체에 관여하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공
학습자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	평가	입시나 점수화로 연결되는 평가로 인해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올곧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 출처: 설규주·정원규(2020)

하지만 학급임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권자 교육으로서 시행되는 학급임원 제도가 교실 속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음을 알려준다. 물론 학급임원 경험이 민주적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임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박가나(2001)는 고등학생의 학생회 임원 경험이 정치적 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임을 확인하였으며, 김영현(2020)은 학급임원 경험을 한 초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신뢰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학급임원 경험이 시민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가 학급임원에게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미영(2020)에 따르면, 임원 경험이 있는 대다수 학생이 임원의 역할을 ‘학생의 관리자, 교사의 보조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학급임원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들 간의 위계질서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장은주, 2017: 216). 교사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이정순(2007)은 교사들이 학급임원을 자신들의 ‘유능한 조교’로 인식할 때가 많으며, 그러한 잘못된 인식은 동료 학생을 통제하는 학급임원의 비민주적인 역할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주현(1992)은 이러한 비민주적 현상의 원인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오늘날의 학급임원 제도는 영국 산업혁명 당시의 조교법(monitorial system)<sup>6)</sup>에서 유래하였으며, 특별히 우리나라의 학급임원 제도는 일제강점기의 급장제도<sup>7)</sup>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급임원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신정아, 2005).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급임원들은 임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리더십의 향상과 같은 모종의 유익을 얻으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정리한 주권자 의식의 개념적 의미에 비추어 본다면, 학급임원들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정치 상황에 참여하긴 하나, 타인과의 조화로운 대안을

---

6) 조교법은 교사가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교사가 학급에서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나머지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7) 급장은 일본 군국주의의 산물로서 학급에서 동료 학생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학생들 간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여 동료 학생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권력자로 활동하였다(조주현, 1992).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일반 학생들은 학급임원과 관계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보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임원 제도가 주권자 교육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몇 혁신학교들이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아래 학급임원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방증한다.

본 연구는 학급임원 선거를 반성적 주권자 교육의 방법으로 실천함으로써 학급임원과 관련한 교실 속 비민주적 현상들을 상당 부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그 사람들이 특정하게 분류되기 시작하는 단계를 수정 및 조절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급임원 선거는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학급임원 선거의 과정과 절차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 학급임원 선거를 실시한 수박초등학교 6학년 학급의 사례에 주목하여, 그것에 참여한 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

8) 초등학교 교사들의 협력적 실험연구를 통해 학생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던 강현미 외(2014)의 연구가 존재한다. 그들은 학생 자치 기반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실험연구를 계획하였는데, 2014년의 연구는 그들의 1차 실행에 관한 연구물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구상한 선거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인해 교실에서 실제로 잘 구현되지 못했다는 점, 선거교육 프로그램의 2차 실행이 계획적으로 잘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새로운 학급임원 선거의 방법으로 선거 공약 글쓰기, 선거 공약에 대한 지표 분석하기, 후보자 청문회 하기와 같은 선거 공약과 관련한 교육활동들을 강조하였는데, 그러한 활동들에 대한 의미를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의 개관

본 연구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질적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 가설을 수립하기 어려운 초기연구의 경우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요청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연구자가 본 연구를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는 이전에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교육 사태이며, 그것이 일어나는 학급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 중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의 방법을 원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연구의 전반적 차원에 있어 ‘사례 연구(case study)’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Yin(1984/2005: 34-37)에 따르면 사례 연구는 총체적인 하나의 연구전략으로서, 그것의 범위(scope)와 기술적 속성(technical definition)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먼저 범위의 차원에서 사례 연구는 실생활의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적 속성 차원에서 사례 연구는 현상에 대한 다수의 변수들을 다루며,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시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Yin(1984/2005)은 사례 연구를 사례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사례를 연구하는 단일 사례 연구와 2개 이상의 사례를 연구하는 다중 사례 연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크레스웰(Creswell, 2007/2015: 125)은 사례 연구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사례들)을 탐색하며, 다양한 정보원(관찰, 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와 보고서)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과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사례 연구는 다양한 정보원들로부터 구성된 자료를 통해 연구 대상인 단일한 또는 다중의 현상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 학급임원 선거를 실천한 학급을 단일 사례로 설정한 후, 학급임원 선거를 참여 관찰하고 그것에 참여한 학생 및 담임교사를 면담함으로써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문화기술지 연구(ethnography research)’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연구자가 문화공유집단(culture-sharing group)이 갖고 있는 가치, 행동, 신념, 언어의 공유되고 학습된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질적 연구 설계의 한 형태를 말한다(Harris, 1968). 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기술지 연구자는 문화공유집단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현지 자료를 수집하며, 문화공유집단 구성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문화공유집단에 대한 이해의

포화(saturation)를 추구하게 된다.

한편, 20세기 초 인류학자들이 수행한 비교문화적 인류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 문화기술지 연구는 연구자가 새롭고 낯선 곳으로 멀리 나아가는 데 높은 가치를 둔다(Walcott, 2008). 그럴 때야 비로소 독자들의 문화공유집단에 대한 새롭고 참신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Creswell, 2007/2015). 따라서 문화기술지 연구는 새로운 문화공유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 결과의 도출을 기대해볼 수 있을 때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 연구를 활용하여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 학급임원 선거를 실천한 학급을 하나의 문화공유집단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사례 학급에서 실시한 학급임원 선거를 참여 관찰한 후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두 가지 연구 질문 즉, 초등학생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행동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한 공유된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독특한 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보편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1) 자료 수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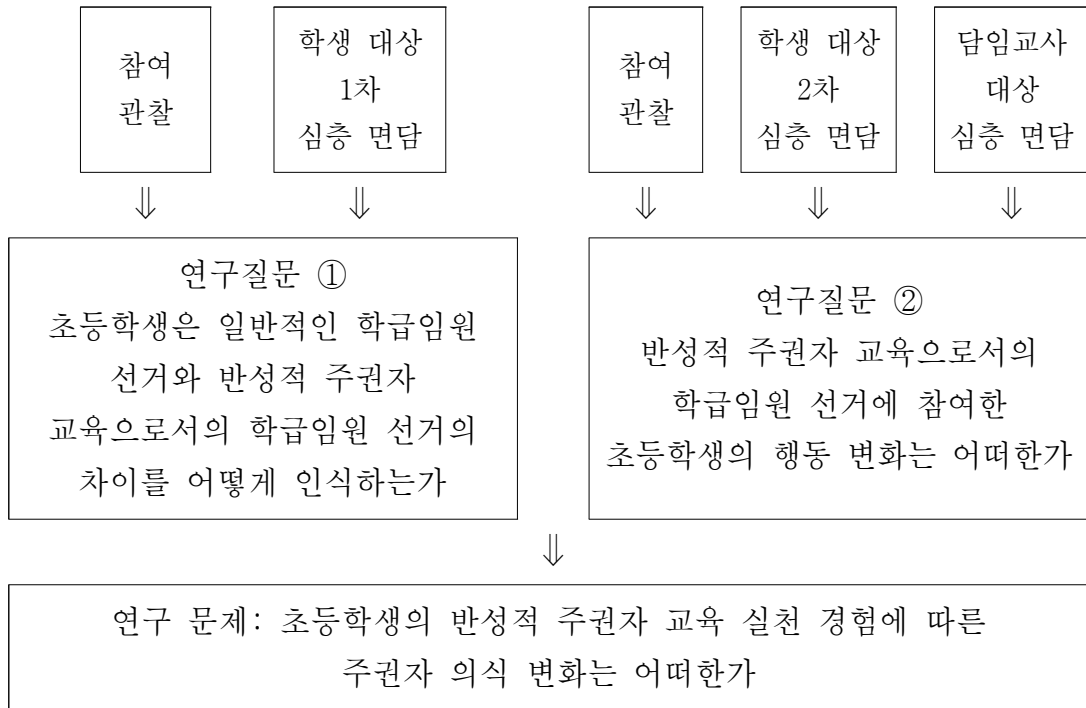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초등학생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에 따른 주권자 의식 변화는 어떠한가?’ 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 문제의 하위 요소로서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는데, ‘초등학생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참여 관찰, 심층 면담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급임원 선거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 관찰은 첫 번째 연구 질문과 두 번째 연구 질문 모두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 되었다. 참여 관찰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가 실시된 9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연구자는 참여 관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첫 번째 연구 질문을 해결하고자 학생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심층 면담은 9월 말에 실시하였는데, 연구자가 2학기 학사일정의 비교적 초입 부분에 1차 심층 면담을 진행한 까닭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기억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두 번째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심층 면담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2차 심층 면담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 참여 경험에 따른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초등학교 2학기 학사일정의 절반 정도가 지난 11월 중순에 실시하였다. 연구 질문 및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Ⅲ-1>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계획



(1) 참여 관찰

연구자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 실시되는 학급임원 선거 과정을 참여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수업 현장에 있기는 하되 학생들과 서로 깊이 관련을 맺거나 수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수동적 참여 관찰’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수동적 참여 관찰을 선택한 것은 학급임원 선거 과정에 외부인인 연구자가 적극적 또는 완전 참여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연구자의 적극적 수업 참여가 제한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작용하였다.



수동적 참여 관찰에서 연구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할 ‘관찰 거점’ 을 찾아내는 것” 이다(Spradley, 1980/2006: 75).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 관찰 당시 관찰한 바를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으며, 참여 관찰의 모든 내용을 녹화 및 전사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녹화된 참여 관찰 영상과 참여 관찰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듣고 읽으면서 ‘아하’ 반응을 형성하는 국면들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스프래들리(Spradley, 1980/2006)가 제안한 문화기술지 연구에서의 참여 관찰 순서를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sup>9)</sup>

## (2) 심층 면담

연구자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말과 11월 중순에 각각 약 1주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샘플링(sampling) 과정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전 학생들을 심층 면담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면담은 학생과 연구 참여자 간 1:1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회당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다만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1차 면담에 한하여 1:2 방식을 수용하여 진행하였다.<sup>10)</sup>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줌

---

9) 스프래들리(Spradley, 1980/2006)는 문화기술지 연구자가 서술 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집중 관찰(focused observation), 선별 관찰(selective observation)의 순서에 따라 참여 관찰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여 관찰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연구자는 관찰의 초점을 좁혀가며 집중된 관찰을 수행하게 되며, 참여 관찰의 내용을 심화시키게 된다.

10) 학생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면담에서는 1:1 방식의 면담을 고수하였다. 2차 면담의 주된 질문이 연구 참여자 자신을 포함한 동료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면담 상황에 다른 연구 참여자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면담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학생 면담을 사례 학급 교실에서 진행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자는 앞선 참여 관찰을 통해 심층 면담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볼 주요 질문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표Ⅲ-2>는 연구자가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이다. 본 연구의 두 차례에 걸친 학생 대상 심층 면담은 이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심층 면담의 실체는 작성된 문항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면담 상황과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완되기도 하였다.

<표Ⅲ-2>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연구 질문	하위 질문
초등학생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학급임원 선거에서 나는 어떻게 참여하였나요? 어떤 주장을 하였고 왜 그런 주장을 하였나요? 반면 과거 실시해왔던 학급임원 선거에서 나는 어떻게 참여해왔나요?</li> <li>-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학급임원 후보자에게 투표했나요? 왜 그 친구가 학급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반면 기존의 학급임원 선거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에 임했나요?</li> <li>- 이번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 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는 이번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 내가 이전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 있나요?</li> </ul>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급임원들은 현재까지 어떻게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li> <li>- 이번 학급임원 선거 이후 임원들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졌나요?</li> <li>- 이번 학급임원 선거 이후 임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졌나요?</li> <li>- 이번 학급임원 선거 이후 (학급임원으로서 또는 일반 학생으로서) 자신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졌나요?</li> </ul>
---	--

두 번째 연구 질문을 해결하고자 연구자는 사례 학급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은 학생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심층 면담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학급임원 선거 이후 나타나는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학생들의 관점이 서로 연쇄하면서 면담의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학생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 2) 자료 분석 방법

연구자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주제화 및 구조화하는 코딩(coding)을 실시하였다. 질적연구에서의 코딩은 관점에 따라 에믹 코딩(emic coding)과 에틱 코딩(etic coding)으로 분류된다. 에믹 코딩은 내부자적 관점 즉,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틱 코딩은 외부자적 관점 즉, 연구자의 논리 구조와 기준

의 학문 틀에 따라 자료를 연역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코딩의 방법 중 에믹 코딩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에틱의 관점은 원자료들을 분류하고 통합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sup>11)</sup>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한 학생들의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추론되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에믹 코딩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자는 면담 상황의 실제적 맥락을 고려하며 면담 전사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읽어보았다. 그리고 연구 질문을 해결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핵심 어구나 어절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이후 준비한 낱말 카드에 해당 어구 및 어절들을 옮겨 적은 후, 그것들을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방식으로 소범주, 중범주, 대범주를 구성해낼 수 있었다. 즉, 작성된 낱말 카드들을 비슷한 범주끼리 묶어 소범주로, 소범주를 다시 비슷한 부류끼리 묶어 중범주로, 중범주를 통합하여 대범주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원자료의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에믹 코딩의 결과, 분류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원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낱말 카드를 분류된 범주에서 제거하고 이합집산을 재시도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에믹 코딩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석 도구를 활용한 자료 체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표(table), 과정표(process chart), 다이어그램(diagram)을 자료의 성격에 맞게 활용하였다.

---

11) 크레스웰(Creswell, 2007/2015: 119)은 문화기술지의 자료 분석을 “내부자(emic) 관점에서 참여자의 견해에 의존하고 그것을 축어적 인용으로 보고하며, 그런 다음 전반적인 문화적 해석을 전개하기 위해 연구자의 외부자(etic) 관점으로 참여자의 견해들을 걸러 내면서 자료를 통합”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에믹 코딩을 실시하되, 원자료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에틱의 관점을 동원하는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자료 분석에 대한 중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의 방법과 결과를 동료 연구자 2인과 공유하여 자료 분석의 주체를 다각화(crystallization)하였다.

### 3) 연구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고려

질적 연구에서의 신빙성은 이해도로 설명된다. 조영달(2015: 322)에 의하면 이해도는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 현상에 점점 깊이 다가가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를 깊고, 진실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실천적 방안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연구 주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담보함으로써 본 연구에 신빙성을 더해줄 것이며, 연구자와 독자를 연구 주제에 대한 포화(saturation) 상태로 이끌어 줄 것이다.

첫째, 연구자는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의 전 과정을 녹화 및 녹음하고 그것을 직접 전사하였다. 전사는 스프래들리(Spradley, 1980/2006)가 제시한 축어의 원칙, 구체성의 원칙, 일상어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거나 압축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하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연구자는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때로는 익숙하게 때로는 낯설게 봄으로써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의 원천을 다각화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의 원천은 단일하지 않으며, 학급임원 선거 과정에 대한 참여 관찰, 사례 학급 담임교사와의 심층 면담, 연구 참여자 학생들과의 심층 면담이라는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의 원천으로부터 구성된 자료는 본 연구의 결

과에 진리다움(truthfulness)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료 분석의 주체를 다각화하였다. 전술하였듯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는 동료 연구자들의 시각이 함께 동원되었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의 결과를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받은 후, 보다 완결성 있게 자료를 분석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 분석 주체의 다각화는 본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 참여자 특성 및 윤리적 고려 사항 검토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총 15명이다. 먼저 사례 학습의 담임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해당 교사는 20년 차의 초등교사로서 학생 자치활동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기에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습임원 선거를 실천하게 되었다.<sup>12)</sup>

또한 사례 학습 22명의 학생들 중 14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14명의 연구 참여 학생들은 남학생 6명과 여학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습임원 선거를 통해 임원으로 당선된 3명의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14명의 학생들 다수는 과거 학습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로서 초등학생은 성인에 비해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자는 연구의 전반적 과정에서 연구 윤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학생 본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까지 얻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 중 학생 본인의

---

12) 사례 학습의 담임교사는 총 3차시 분량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습임원 선거를 운영하였다. 3차시 중 1, 2차시는 학습임원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으로, 3차시는 투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연구 참여 학생들이 심층 면담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면담 질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사례 학습의 교실에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표Ⅲ-3>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분류 (명)	참여자 코드	성별	비고
담임교사 (1)	담임교사	여	
학생 (14)	동해	남	
	백두	남	2학기 학습임원
	산이	남	1학기 학습임원
	보우	남	2학기 학습임원
	우리	남	
	나라	여	2학기 학습임원
	만세	여	
	무궁	여	
	삼천	여	
	화려	여	
	강산	여	
	대한	여	1학기 학습임원
	길이	여	2학기 학생회 임원
	보전	남	1학기 학습임원

## IV. 초등학생의 학급임원 선거 간 차이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이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대한 경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 장은 총 두 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학생들은 각 학급임원 선거에서 수행하였던 자신들의 참여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를 첫 번째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각 학급임원 선거에서 서로 다른 투표의 기준을 사용하였음을 밝혔는데, 이것이 두 번째 절의 내용이다.

### 1. 선거 참여의 성격:

순응적 · 소극적 정치참여 vs 주체적 · 적극적 정치참여

#### 1) 순응적·소극적 정치참여

정치참여는 “정치공동체의 일반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부 · 시민사회 · 직장의 의사결정 또는 집행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자발적인 행위”로 정의된다(김영인, 2003: 42).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학급임원 선거는 학생들의 정치참여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의 장이며, 학급임원 선거는 학교에서 학급의 대표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는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잘 담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순응적이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참여에 순응적이라 함은 학생들이 학교 규칙에 의해 미리 정해진 선거의 절차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리 정해진 선거의 절차는 ‘임원의 입후보’, ‘소견(공약) 발표’, ‘투표’, ‘당선자 소감 발표’ 순서의 선거 과정 일반을 말하는데, 이는 실제 사회의 선거 과정을 모방 및 축소하여 교실의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급임원 선거는 교육적 맥락에서 실천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학급임원 선거의 참여 절차가 반드시 실제 사회의 선거 절차를 따라야 할 당위성은 성립되기 어렵다. 학생들의 주권자로서의 자각은 주어진 질서에 대한 순응 경험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그냥...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말 조금 하고 투표하고 그냥 그렇게 끝이었는데 이번 선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백두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예전 임원 선거요? 예전에는 회장이 해야 할 일, 회장의 성품 같은 거에 대해 이야기 안 하고, “회장 할 사람?”, “저요!”, “그래. 너 후보로 들어가.”, “뿔아.”, “너 회장이야.” 이랬어요.

대한 1차 심층 면담 (2021년 10월 7일)

또한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급임원 선거에서 투표 행위에 한정된 소극적인 참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이며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표결(票決)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학급임원 선거의 전 과정이 소극적인 투표 참여 활동으로 제한되어 운영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급임원 선거를 학생들의 소극적인 투표 참여 활동으로 운영해왔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학급임원 선거 참여를 ‘그냥 투표만 했다’, ‘가만히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학급임원 선거는 표결의 전후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의제에 대하여 대화와 토론을 시도해보는 등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교사: 그럼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를 할 때에는 어떻게 참여해왔어?

동해: 저는 지금까지 학급임원 선거를 하면서 후보에 나간 적은 그렇게 크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학급 회장, 부회장 그런거 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교사: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줄 수 있니?

동해: (중략) 그냥 투표만... 했어요.

동해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그냥 믿음 가는 애들 추천하고 투표도 하고 했었어요. 아, 추천은... 딱히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중략)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애들 말 듣고 그냥 투표만 했었어요.

나라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 2) 주체적·적극적 정치참여

사례 학급에서 실천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은 학생들이 투표 활동에 임하기 전 ‘우리학급에 필요한 임원의 역할과 특성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반성적 토론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토론 주제에 대한 선결 사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그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학급임원의 조건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학생들이 공동의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수행하여 학급임원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독자적이고도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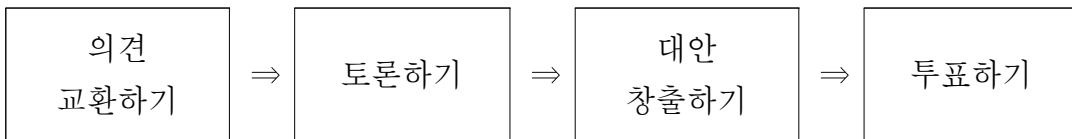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새롭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의사결정의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음으로써 학생들은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 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감정을 의미하는데, 정치 효능감은 대체로 정치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et al., 1954; 류태건, 2011). 실제로 학생들은 학급임원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 내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였다.

애들이 회의할 때 의견을 내잖아요? 의견을 내는데 정말 열심히 손을 계속 들면서 열심히 말하는 모습이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잘 참여하는 모습이 좀 신기했어요.

나라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참여 관찰 및 심층 면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절차는 ‘의견 교환하기’, ‘토론하기’, ‘대안 창출하기’, ‘투표하기’ 순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들은 모두 학생 중심적인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학급임원이 해야 할 역할과 갖춰야 할 특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한 후, 공동의 의견을 선정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여, 통합된 형태의 대안을 창출하였으며, 창출한 대안에 준하여 투표를 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참여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 <표IV-1>과 같다.

<표IV-1>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 참여 절차



‘의견 교환하기’의 단계에서 사례 학급의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학급임원의 역할과 특성을 포스트잇에 자유롭게 작성하고 이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표해봄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학급의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 집단의 발산적 사고기법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하여 학급임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교환하게 된 것이다.

이후 ‘토론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앞서 제시된 학급임원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의견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의 전반적 과정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경쟁 형태가 아닌 의사소통을 통한 사고(thinking)의 확장에 초점을 두어, 제시된 의견들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

고 적합하지 못한 의견들을 제거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예를 들어, 사례 학습의 학생들은 토론을 통하여 학습임원이 물건을 빌려주는 존재, 모르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존재, 무조건 친구들을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원들이 학습에서 떠드는 친구들을 조용히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에서는 학생들 간의 의견 대립이 극심하게 나타났기에 의견의 통합이 어려웠다. 1학기 학습임원을 중심으로 한 몇몇 학생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학생들이 임원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였던 반면, 다수의 일반 학생들은 임원들이 자신들도 잘 준수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였으며 때로는 임원들의 발화 태도가 고압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대한: 회장이 말을 해봤자 학생들이 말을 잘 듣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백날 말해봤자 시끄럽게 떠드는데, 학생들도 회장 말을 잘 들어줘야 저희도 할 맛이 나는 게 아닌가요?

교사: 반대의견이나 의견 추가하실 분?

화려: 대한의 의견에 추가하여, 회장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사: 아, 그래서 카리스마가 나왔구나.

만세: 회장이 똑같이 떠드니까 말해도 안 듣는 건데. 회장이 처음부터 조용히 하면 (다른 친구들도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 (도발하며) 너희들이 정말...

동해: 아까 대한이가 뭐 말을 들어야 할 맛이 난다고 했지만, 회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회장들도 똑같이 떠들었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이.

대한: 솔직히 저희 말을 잘 따라주셔야 저희도 잘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먼저 조용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용히 한다 하

더라도 여러분이 눈빛으로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생들: (웅성대며) 싸운다. 싸운다.

학생1: 아니 길을 가다가 다른 반을 봐도 떠들고 있어요. 뚫린 입이라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회장들이 나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맨날 “떠들지 마!”, “앉아! 조용히 해! 앉아! 조용히 해!”

학급임원 선거 참여 관찰 (2021년 9월 7일)

이러한 토론과정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때로는 싸움과 갈등, 흥분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그만큼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적극적인 정치참여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들이 의사결정의 주권자로서 학급의 대표를 뽑는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간의 극심한 의견 대립에는 학급임원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견(異見)이 자리잡고 있었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해 일부 학생들은 임원을 선생님처럼 학급을 이끄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다수 학생들은 임원을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존재이나 특별히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각기 지니고 있는 임원에 대한 상(像)에 따라 학급임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솔직히 회장으로 뽑히면 선생님과 동등한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2고 우리가 1이라면, 회장은 약 1.5 정도는 된다고 느껴요.

화려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9일)

임원의 역할은 선생님 밑에서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학생들을 잘 이끄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우두머리? (중략) 그래도 회장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학생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작은 자부심 말고 그래도 좀 더 큰 자부심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일반 학생들과 임원이 다른 건 맞으니까... (중략) 저는 선생님이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회장은 등불을 들고 그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한 1차 심층 면담 (2021년 10월 7일)

연구자: 학급임원이 동해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어?

동해: 그냥 같은 반이요. (중략) 그냥 같은 반 친구.

동해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임원은 리더니까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고, 부드러운 걸 주장하는 친구들은 임원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학생이니까...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백두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안 창출하기’ 단계에서 임원의 존재 의미에 대해 합의하여 ‘학급임원은 특권의식이 없어야 한다’는 대안을 형성해낼 수 있었다. ‘특권의식’은 초등학생들에 의해 ‘잘난 척’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임원이 학급을 이끄는 존재라 하더라도 자신이 임원임을 뽐내거나 특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모든 학생들이 규범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창출된 대안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앎으로 인식되었다. 학급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들의 특권의식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확장된 사유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

서의 학급임원 선거가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력을 함양하였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갈등과 다툼의 상황 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확장된 사유로서의 대안을 창출해냈기 때문이다.

토론을 통해서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평소에 생각 안 해본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 제가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전 1차 심층 면담 (2021년 10월 8일)

저는 약간 뭐랄까, 뜻깊은 시간? 약간 뭔가를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 1차 심층 면담 (2021년 10월 7일)

또한 특권의식과 비슷한 맥락에서 학급임원의 ‘부드러운 말투’도 반성적 성찰 과정에서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투는 학급의 명시적인 대안이라기보다 암묵적인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부드러운 말투가 명시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임원이 학생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원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한다고 하여 카리스마적 성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부분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극심한 의견 대립을 봉합할 필요성에 따라 부드러운 말투를 명시적인 최종 대안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거에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애들이 다 그걸 안 좋게 생각해서, ‘아... 자부심이 너무 과하면 안 좋구나’ 해서 회장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거를 좀 없었다고나 할까요? (중략) 네, 맞아요. 특권의식이요.

산이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원래 (임원은) 특권의식을 조금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략) 특권의식을 너무 많이 가지면 뭔가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게 무슨 임원 역할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그게 임원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만세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 2. 투표의 기준:

### 실질적인 기준의 부재 vs 학급의 자율적 규칙

#### 1) 실질적인 기준의 부재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에서 초등학생들이 투표에 적용하였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볼 수 있다. 먼저, 학생 간의 인기이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급임원 선거에서 학생 간의 인기를 중요시한다고 밝힌 김지훈(2014)의 연구를 지지한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과거 학급임원 선거에서 자신이 투표에 적용한 기준을 ‘~처럼 보이는 친구’, ‘첫인상’, ‘분위기’, ‘아는 친구’ 등의 낱말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 선호 사항은 학급임원을 결정하는 타당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학생들이 인기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권자 교육의 맥락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정 학생이 지니는 인기나 매력이 투표의 기준으로서 작용한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다수 학생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학생이 학급임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주권을 발휘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인기투표로서의 임원 선거는 유권자가 지닌 주권성을 경험시키기보다 당선자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돋보이게 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되새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냥 아는 친구를 뽑거나, 아니면 그냥 모범생처럼 생긴 애를 뽑은 것 같아요.

우리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첫인상? 첫인상이 다 결정하죠. 거의 인기투표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애가 있어요. 소문난 애. (중략) (과거에) 애는 학급 회장이 됐어. 애는 전교 어린이 회장에 나갔어 그런 말이 들렸던 친구... 그런 친구들은 한 번도 같은 반을 한 적이 없더라도 이름은 알고 있어요.

무궁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두 번째 기준은 후보자가 발표하는 공약이다. 후보자의 공약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급임원 선거에서 발표되는 공약의 내용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과거 후보자 학생들의 공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학급임원 선거뿐만 아니라 학생회

선거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하였던 길이는 자신이 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표했던 공약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었다.

(공약이) 다 비스무리 해서... (중략) 그냥 다 나가면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거의 대부분 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삼천 1차 심층 면담 (2021년 10월 7일)

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준비를 철저히 한 애를 뽑았어요. (소견) 발표하는 거 준비하고 그런 애들이요.

연구자: 공약을 이야기하는 건가?

길이: 네. 맞아요. (중략)

연구자: 그런데 길이가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면서? 그때 공약으로 뭐를 내세웠었어?

길이: ...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기억이 안 날 줄은 몰랐거든요. 방학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뭘 공약을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뭘 설치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귀담아 들어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길이 1차 심층 면담 (2021년 10월 8일)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공약은 주로 후보자들의 허황된 공약이나 우스꽝스러운 공약이었다. 학생들은 그러한 공약들을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선거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투표 행위를 가르치고자 하는 현재 선거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에게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sup>13)</sup> 이는 주권자 교육으로서 학급임원 선거가 공약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투표 행위 이상의 새로운 목표를 추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4학년 때 어떤 남자애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나와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써온 거 말하면서 ‘저는 메뚜기 같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내용이 좀 웃겼어요. (중략) 그리고 전교 임원 뽑을 때, 다들 자기 돈으로 뭘 하겠다, 아니면 학교에 투표함? 건의함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다 소용이 있나 싶고 아무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가지고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왜 굳이 저렇게,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싶고...

나라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전교 회장 뽑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 애가 뭐 자기가 회장되면 급식 맛있는 걸로 바꾼다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동해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

13) 김명정(2020)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선거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어떤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선거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학급 및 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령 경기도교육청(2021)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재로서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시민되기 프로젝트>를 발간하였는데, 그중 선거교육에 대한 주된 활동으로 ‘공약 점검표 작성하기’, ‘매니페스토 선거하기’, ‘공약 토론회 열기’를 제시하고 있다.

## 2) 학급의 자율적 규칙

이상의 논의는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에서 투표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부재하였음을 의미한다. 학생들 간의 인기는 학급의 임원을 선출하는 타당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후보자들의 공약은 허황되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급 공동체의 성찰 결과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준하여 투표를 함으로써 바람직한 투표 행위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자율(self-legislation)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자유의지를 지닌 개별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이지만, 학급의 대표를 뽑는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특권의식이 없는 회장’,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회장’이라는 대안을 창출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준수하게 된 것이다. 주권자 교육의 맥락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공의를 모아 결정한 자율적 투표의 기준은 그것을 형성한 주체들의 주권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 기준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것저것 기준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이 다 참여했잖아요. 그게 참여한 만큼 자신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뽑은 거죠. 이번 선거는요. (중략) 과거에는 저런 게 (회의)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친분 있는 애들? 약간 좀 인기 투표 같은 걸로 뽑았다면, 이번에는 토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뽑은 것 같아요. 토론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약간 누가 제일 맞나 좀 약간 추리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재미있었어요.

보전 1차 심층 면담 (2021년 10월 8일)

산이: 기존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각자의 기준? 그러니까 학급임원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인마다 다른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걸 정하니까 그 생각이... 음... 하나로 뭉쳐졌다고 해야 할까? (중략)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학급임원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니까...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중략) 그럼 그 기준에 맞는 임원을 뽑게 된 것 같아?

산이: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같이 한 기준이 된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 됐으니까, 만약에 다른 기준이었다면 다른 애가 뽑힐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기준에 매우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산이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학급 공동체의 반성적 성찰 과정을 통해 자율(自律)로써 결정한 투표의 기준은 두 가지 기능적 유익을 제공하였다. 먼저 유권자 학생들은 후보자들을 더욱 잘 선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불명확했던 투표의 기준이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가 투표 행위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는 학급의 반성적 성찰 과정만을 강조함으로써 투표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비투표적 참여를 선거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선거 교육을 내실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 학생들은 학급 공동체의 성찰 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을 더욱 잘 선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학급임원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정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학급임원을 뽑을 수 있어서 쉽게 뽑았던 것 같아요. (중략) 이전에는 처음 만나고 그래서 누굴 뽑을까 생각했는데... 그 고민이 어려웠어요.

산이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이번 학급임원 선거는) 회의를 통해 애들이 생각하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으니까 더 쉽게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음... 그러니까 전체 기준이 좀 뽑기 쉽게 해준다?

강산 1차 심층 면담 (2021년 10월 7일)

또한 임원 후보자 학생들은 학급의 자율적 규칙으로서의 투표 기준에 적합하게 선거 공약을 세우거나, 당선 이후 자신이 갖춰야 할 모습을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학급은 특권의식이 없는 회장을 대안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임원을 선출하였기에, 임원으로 당선된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자신의 행동을 그 기준에 맞춰 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급임원 선거가 사실상 여러 학생 중 투표로써 누가 주권자인지를 선별하는 ‘주권자를 뽑는 선거’로부터 투표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모든 학생이 일정한 주권을 행사하고 그것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는 모두가 ‘주권자가 되는 선거’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학생들이 그들의 자율적 규칙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들 사이에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상호주관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여 생각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Berk & Winsler, 1995; 배재정·정경희, 2003: 156에서 재인용).

백두: (친구들이 저에게 뭘 원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런데 백두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2학기 때 학급임원 선거에 나갔다고 했잖아? 그때는 친구들이 나에게 뭘 원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

백두: 올해처럼 이렇게 깊게까지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백두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연구자: (토론이) 선거에 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야?

만세: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좀 사라진달까? 원래 1학기 때는 그런 토론 없이 했으니까 잘 몰랐을 수도 있고 해서... 더 치우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만세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마지막으로 사례 학급의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투표의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학급 공동체의 연대(solidarity)를 경험할 수 있었다. 정원규 외(2019: 22)는 연대를 공적 결사체의 결속과 관련된 넓은 의미로서 “자율적으로 제정된 사회적 규칙이 자신의 뜻에 반하더라도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사회적 소속감의 공인”으로 설명하였다. 연대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전체의 자율적 규칙을 준수해 나가며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화려의 사례는 이러한 연대의 좋은 예가 되어준다. 화려는 학급임원을 반을 이끄는 존재로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기에 임원은 카리스마적 성격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보아, 임원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의지를 거듭 피력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화려의 의견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부드러운 말투가 사실상 학급의 의



견으로 결정되고 말았는데, 화려는 심층 면담 과정에서 학급임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는 학급 공동체가 결정한 자율적 기준에 따라 투표에 임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연구자: 이번 학급임원 선거에서 화려가 계속해서 카리스마를 주장한 것이 인상 깊었어.

화려: 다 기각당하고 말았죠...

연구자: 화려는 왜 카리스마가 학급임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화려: 반장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중략) 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선생님 대신해서 뭐 어디 애들 데리고 갈 때도 많으니까요.

연구자: 하지만 사실상 친구들은 카리스마보다는 부드러운 걸 선택했잖아. 그럼 화려는 회장으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뽑았어,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을 뽑았어?

화려: 그래도 정한 대로 (부드러움) 했죠 뭐.

연구자: 내가 카리스마를 여러 번 주장 했지만 그 주장이 학급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학급 의견에 따르게 된 거야?

화려: 다른 친구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딱 걸로 했어요. 적혀있는 거(부드러움)로요.

연구자: 화려의 의견은 동일하지만 그래도 학급이 같이 결정한 걸 존중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화려: 네. 맞아요.

화려 1차 심층 면담 (2021년 10월 7일)

## V. 초등학생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 참여 경험에 따른 행동 변화

이 장에서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학생들이 학급임원 선거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정권을 발휘하였을 때 나타나는 교실에서의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장은 총 두 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학생들은 학급임원 선거의 반성적 성찰 과정에서 결정하였던 학급의 공동 규칙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첫 번째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학급임원 선거의 반성적 성찰 과정을 통해 학급임원과 일반 학생들은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상호존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두 번째 절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 1. 자기조절적(self-regulatory) 행동의 실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인간의 마음이 그 마음의 기능과 상태 및 내적 과정들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체계(system)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는 의식적 노력이 포함되는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Vohs & Baumeister, 2004; Zeidner, Boekaerts & Pintrich, 2000; 김교헌, 2006: 255에서 재인용).

자기조절은 행동의 목표로서 ‘준거가(reference value)’를 형성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 및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후속하는 자기조절의 순환 과정에 환류(feedback)되어 반영되게 된다(Cameron & Leventhal, 2003). 예를 들어,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퇴근 후 친구들과의 사적 만남을 미루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실천하는 자기조절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형성된 가족의 단란함은 연구자의 자기조절을 더욱 강하게 동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한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자기조절적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사례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임원 선거의 반성적 성찰 과정을 통해 결정한 공동의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보인 자기조절의 모습은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들의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관찰된다.

먼저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들은 선거의 반성적 성찰 과정에서 결정한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삼가고,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학급임원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반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적으로 조절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유권자였던 일반 학생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전의 모습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행동 변화를 통해 학급임원의 일반 학생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 변화하였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통하여 학급임원들은 일반 학생들을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새롭게 개념화하게 된 것이다.

임원들의 변화요? 아무래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잘난 척하는 애 싫고, 말 세게 하는 애 싫고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들이)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 조심하는 아이들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더 신경 쓰게 되는? (중략) 이게 사실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아이들이 은연중에 가졌던 생각들이 도드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임원으로 당선된) 애들이 눈치도 있고 들은 소리도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나왔던 그러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멀리 가지 않으려고 무의식 중에라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임교사 심층 면담 (2021년 11월 8일)

지금 회장은 막 앞에서 특별히 통솔을 한다거나 하지를 않아요. 1학기에는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회장에 대해) 좀 불만이 있었어요. 체육 담당 1인 1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장이 1인 1역 대신 자기가 애들 줄 세우려고 하고 그런 거에서 애들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장들은 자기 줄에 그냥 자기가 서요. 다른 애들도 그냥 자기 줄에 서는 것 같아요.

보전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5일)

일반 학생들에게 이러한 학급임원들의 행동 변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학급임원의 행동을 조절하는 근거가 임원 선거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창출한 공동의 자율적 규칙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술하였듯, 임원 선거의 반성적 성찰 과정을 통해 학급임원들과 일반 학생들이 학급임원이 지켜야 할 행동적 조건들에 대하여 상호주관성을 형성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2학기 임원들은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원래 자기 자신만의 ‘회장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되겠지’ 라는 회장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회의를 통해) 같이 알게 되었으니 더 안 싸우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만세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4일)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학급임원들의 자기조절적 행동이 자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학급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조절적 행동을 하는 까닭은 그들 역시 투표의 기준을 마련하는 임원 선거의 반성적 성찰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라이언과 데시(Ryan & Deci, 2000)의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라이언과 데시(2000)는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자기조절 동기유형을 동기가 결핍되어 있는 무동기,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동기, 내사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동기,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동기,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동기, 내재적 조절(intrinsic regulation) 동기로 분류하였다(Ryan & Deci 2000; 김아영, 2010). 사례 학급 학생들의 자기조절 동기가 정확히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학급임원들의 행동이 자발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학급임원들의 행동 변화는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학급임원들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행동 준거를 스스로 결정하였음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들이 약간 좀 더 잘 도와주는 느낌이랄까? 이전보다 잘 챙겨주는 느낌이 있어요. (중략) 뭐 어려운 거 있을 때나 모르는 거 있을 때 게임 하는 법도 알려주고요. 엔트리봇이나 저기 앞에 보드게임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잘 알려준다거나 그런 거 할 때 느낀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좀 더 나서서 하려고 하는 느낌? 요즘 청소를 네 명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보우(2학기 남자 회장)가 누가 결석하면 내가 대신 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뜻...

화려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9일)

만일 학급임원이 지켜야 할 기준적 규칙이 교사나 동료 집단 등의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면, 임원들은 그러한 기준에 맞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실제로 사례 학급의 담임교사는 1학기 선거를 마친 후 학급임원으로 당선된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행실을 요청한 바 있었다. 하지만 임원 선거의 반성적 성찰 과정의 내용으로 보아 1학기 임원들의 민주적 태도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급임원의 자기조절적 행동 즉, 학급임원들이 일반 학생들을 의식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은 학급임원들이 일반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속되었음을 의미할 수 없다. 오히려 학급임원의 자기조절적 행동은 학급임원이 자기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일반 학생들의 의사결정적 주권성을 인정하여 그들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해석함이 옳다.

사실 1학기 선거 끝나고 (당선된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원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친구들) 위로 올라가거나 (친구들을) 아래에 두거나 할 생각하지 말고 (임원은 친구들과) 같이 가는 사람이야. 대신 (친구들이) 너희를 뽑았기 때문에 책임지고 도와줘야 해.” (중략) “다른 친구들하고 동급에서 있어야지 이끈다는 이유로 너희가 친구들을 홀대하면 안 된다. 명령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략) 그런데 제가 없는 공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잘난 척’, ‘말이 세다’ ... 저는 그런 낱말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보여주는 우리 반의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없을 때의 진짜 모습이에요.

담임교사 심충 면담 (2021년 11월 8일)

또한 일반 학생들 역시 학급임원 선거의 반성적 성찰 과정에서 정한 공동의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자 하였는데, 그러한 노력은 선거의 토론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의견으로 검토된 내용들을 학급임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부탁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토론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급임원이 친구들을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에 따라 일반 학생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 학급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반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례 학급이 지니는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례 학급에서는 과거 학급회의를 통해 1학기 학급임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학기 동안 교실의 모든 청소를 학급임원이 도맡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학생들이 ‘학급임원은 학급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명목적인 이유를 들어 임원들에게 자신들이 기피하는 일을 미루려 했던 것이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사례 학급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학급임원에게 ‘네가 임원이라면 이러이러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 는 식의 발언으로 학급임원을 불쾌하게 했던 일이 빈번했었다.

학급 회의 때 청소 문제로 다뤘었거든요. 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장 임원단들이 봉사를 하기로 자기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매일매일 회장단들이 청소를 할 것인지 이걸로 했었는데 찬성하는 쪽이 반을 넘어가지고 저희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중략) 그러니까 저는 회장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일은 더 많이 하되, 그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말하기만 해도 ‘너 회장이잖아’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2학기 때에는 ‘회장이니까’ 라는 말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회장이니까 뭐 이런 거 해야지’ 하는 약간 부담 주는 그런 말이에요.

대한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8일)

이러한 행동 변화를 통해 일반 학생들은 새롭게 선출된 학급임원들을 보다 ‘공적인 존재’ 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얼핏 엄격해진 선거의 기준을 통과한 당선 학생에 대한 존경(esteem)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 학생의 임원에 대한 인정은 그들이 임원의 지위를 획득하였기에 부여받는 평가적인 인정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일반 학생들이 학급임원을 공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는 임원 선출의 준거를 결정하는 데 주권자로 참여하였던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즉,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은 일반 학생들의 주권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살짝 (임원들의) 부담이 없어진 것 같아요. 1학기 때에는 진짜 애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가? 부담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고 즐기는 것 같아요. (중략) 애들도 요즘 별로 부담도 안 주고요. ‘아, 회장이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말이 1학기 때는 있었는데 2학기 때는 그런 말도 없고... 부담을 별로 안 주는 거 같아요. (중략) 회의를 하고 뽑았잖아요. 자기네들이 누구를 뽑았는지 아는 거죠. 잘난 척, 배려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에 맞는 애를 찾았으니까 임원들을 믿는 거겠죠?

무궁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4일)

부담이요? 그때보다는 확실히 준 것 같아요. 애들이 뭐 할 때마다 ‘회장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딱히 안 하는 것 같고...

보우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8일)

## 2.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상호존중의 실천

존중(respect)은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적인 시민적 가치이다. 정원규 외(2019)에서도 시민이 주권자라는 사실로부터 주권자인 시민들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하지만 주권자 교육의 맥락에서 존중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존중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상인(2014)의 인간 존중관에 대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인(2014)은 존중관을 평가 존중관, 권리 존중관, 차이 인정 존중관, 존재 긍정 존중관으로 분류하였고, 존재 긍정 존중관을 제외한 세 가지 존중관은 모두 존중의 근거가 되는 평가적 잣대를 지니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존재 긍정 존중관은 평가적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대상을 그 자체로 바라보아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로 설명된다. 따라서 존재 긍정 존중관을 지지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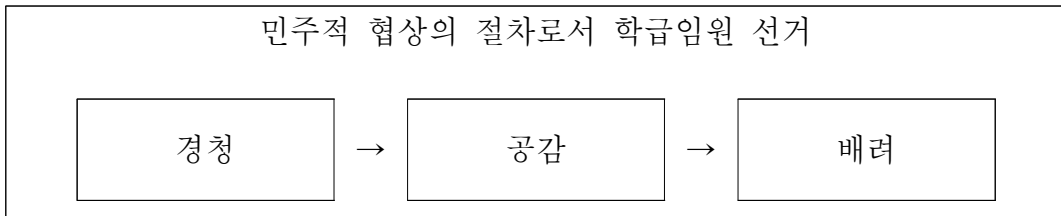
주권자 교육의 맥락에서 존중이란 이러한 존재 긍정 존중관에 입각한 상호존중을 의미한다. 주권자 교육에서 존중이란 일차적으로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존중은 주권자의 인간론적 특성 즉,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원규 외, 2019: 21). 상대방을 주권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과 상대방과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인(2014: 119-132)은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존중의 방식을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차이를 가진 구성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 협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일상의 차원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방식으로 경청(傾聽)과 공감(共感), 그리고 배려(配慮)가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때 배려란 상대방에 대한 친절한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존중의 행위적 차원으로서 배려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 및 공감하여 그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즉, 상대방의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배려이다.

사례 학습의 학생들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실천함에 따라 이러한 존재 긍정의 상호존중을 연습할 수 있었다. 민주적 협상 절차로서의 학습임원 선거를 통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 및 공감한 결과 서로를 배려하는

상호존중을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V-1>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통한 상호존중의 실천



학생들이 실천한 배려의 모습은 그들의 말하기 방식의 변화로 설명된다. 먼저 학급임원들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전제적이고 통제적인 말하기 방식에서 권유하고 부탁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지난 회장들이 ‘책 펴라!’ 약간 이렇게 큰 목소리로 전체에게 말하는 느낌이였다면, 지금 회장들은 ‘지금 몇 쪽 어디니까 책 펴.’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중략) 책을 안 펼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책 펴. 지금 몇 쪽 펴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부탁하는 느낌이에요.

만세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4일)

지금 임원들은 임원이 임원 같지 않은 느낌? 그냥 친구? (중략) 예를 들어서 대한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조금이라도 시끄럽거나 지방 방송 같은 거 하면은 딱 바로 잡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현재는 그런 느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길이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10일)

임원들의 말하기 방식이 변화한 까닭은 선거의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임원에게 ‘부드러운 말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감(empathy)은 자신과 타인이 분리된 개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심리 즉, 타인의 생각, 의도, 감정 등을 이해하고 그것에 자신을 인지적, 정서적으로 일치시키는 현상을 뜻한다(한중순, 2005; 김태훈, 2015). 학생들은 타인의 의견을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타인에게서 자신과 일치된 모습을 발견하거나, 비록 타인의 의견이 자신의 기존 생각과 반대되더라도 그 주장의 타당성에 비추어 공감을 나타내었다.

일단 회의를 통한 기준점에 제가 공감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중략)  
일단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약간 말이 좀 부드럽게 나와야 된다는 것? 뭔가 약간 부드러워야 된다는 느낌? (중략) 과거에는 임원들이 막 애들한테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 마.” 말하는 게 좀 듣기 불편했어서... 부드러운 말투랑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라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카리스마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애들이 카리스마에 대해 반론을 할 때 너무 맞는 말 같아서 반론을 못했어요.

산이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7일)

또한 일반 학생들 역시 학급임원들에게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학급임원의 요청이나 부탁을 수용하려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어, 1학기에는 임원들의 말에 일반 학생들이 거친 말투와 고성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실천한 2학기에는 임원들의 요청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1학기 때는 임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결국 듣기는 했는데 엄청 궁시렁거렸어요. 막 ‘네가 우리 엄마냐’, ‘너가 더 시끄럽다’ 하면서요. (중략)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1학기에는 그렇게 지시하면 통제받는다느낌이 들곤 했는데, 2학기에는 그래도 부탁하는 거라서 잘 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길이 2차 심층 면담(2021년 11월 10일)

그런 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고요. 그냥 떠드는 애들한테 개인적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중략)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말을 안 들어주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친구들이 많긴 해요.**

백두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9일)

이러한 일반 학생들의 변화 역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통해서 학급임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것에 공감한 결과로 여겨진다. 일반 학생들은 선거에서의 토론 과정을 통해 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임원들이 느꼈던 책임감, 역할 수행에 따른 나름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말하기 방식과 관련하여 ‘나도 센 말투를 사용했던 것은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성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초등학생의 이러한 행동 변화는 서로의 존재를 배려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입장에 공감함으로써, 상대방의 욕구 및 자아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반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급임원들은 일반 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려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일반 학생들은 학급임원들의 입장을 헤아림과 더불어 자신들의 모습을 함께 성찰함으로써 학급임원의 요청을 잘 수용하게 된 것이다.

사실 회장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는데 현장체험학습에 갔다가 집에 돌아갈 때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애들은 시도 때도 없이 떠들었거든요. 회장이 안 떠들면 자신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하지만, 회장이 안 떠들어도 애들은 떠들고 보기 때문에 말을 해도 다시 떠들 때가 많았어요.

우리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저는 이번에 회의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았던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반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랄까요? 애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맞다. 우리가 이런 게 문제점이구나. 우리가 말을 세게 했었구나. 서로에게 너무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순간적으로 뜨끈뜨끈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회장단이 쟁어야 할 만큼 우리의 태도도 쟁었던 건 아닐까?’ (중략) ‘우리 반의 말투가 이렇게 쟁구나’ 라고 서로 돌아보게 되는 시간?

담임교사 심층 면담 (2021년 11월 8일)

이렇게 학생들이 상호존중의 배려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토론의 과정에서 발화된 의견과 발화의 주체를 연결하여, 발화 주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만세는 백두가 평소에 영어 시간에 하던 행동들을 수궁할 수 없었지만, 백두가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억하여 백두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백두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친구의 의견을 알게 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략) 왜냐하면 친구들이 (선거 과정에서) 다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게 된 거죠. 1학기 때는 그런 게 없고 그냥 했으니

까 잘 몰랐고요. (중략) 항상 영어 시간만 되면 좀 나서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는 이해를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요. 개가 회장들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했었던데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친구를) 이해하게 됐다? (중략) 원래는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약간 좀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만세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4일)

이러한 상호존중을 실천한 결과, 사례 학급은 더욱 친밀한 학급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학급임원들과 일반 학생들과의 갈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례 학급에는 학급임원이 선생님처럼 일반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임원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과 학급임원들도 자신들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던 다수 일반 학생들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사례 학급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계기로 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호존중을 실천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었다.

(과거에는) 반장을 욕했죠. 회장을 욕했어요. (중략) 앞에서 이야기 하면 약간 말싸움이 됐었고요. 뒤에서는 약간 재 너무 회장되서 잘난 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동해 2차 심층 면담 (2021년 11월 9일)

전체적으로 좀 1학기보다는 그렇게 막 고성이 오가는 건 줄었어요. 임원단이 나서서 막 뭘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줄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중략) 2학기 때는 아이들이 더 친밀해져서 말이 더 많아지긴 했는데 교실에서의 세고 거친 표현은 1학기 때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담임교사 심층 면담 (2021년 11월 8일)

## VI. 논의 및 결론

이 장에서는 IV장과 V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추론하여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가 상정하였던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연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도 기능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요약하고, 그것에 비추어 주권자 교육에 대한 학문적 및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논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따른 주권자 의식의 변화

본 연구는 주권자 의식을 ‘자신과 공동체의 삶에 결부된 정치적 상황에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관여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대안을 내리고 그것을 준수하고자 하는 내면적 태도’로 정의하였다. 즉, 주권자 의식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특정한 태도로 이해되며, 이는 일종의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추론하기 위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태도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된다는 3요인설이 여러 사회심리학 이론 중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Rosenberg



& Hovland, 1960).

먼저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실천하며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살피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이 인지적 및 정의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내 고자 하였다. 인지적 및 정의적 측면의 태도 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심리학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때로는 대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정서가 유발되기도 하며(Frijda, 1988), 정서적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인지적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Rosenberg, 1960).

초등학생들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통하여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의사소통, 적극적인 정치참여, 경청과 공감, 이견의 조율, 상호주관성의 형성, 사유의 확장, 학급 생활에 대한 성찰, 자율과 연대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통해 자신이 가진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에 반론 및 재반론을 펼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정치참여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그러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경청과 공감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러한 이견들을 조율하여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나아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급임원이 지녀야 할 행동 특성 등에 관한 상호주관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주관성은 학생들 편에서는 새로운 앎을 얻은 것으로 또는 자신의 사유를 확장한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 유권자 학생들은

단순한 투표 참여의 방법을, 당선자 학생들은 리더십 등의 개인적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경험적 양상은 학생들이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통해 그동안의 학급 생활을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학급의 성찰 결과를 자율적 기준으로 하여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자치(自治)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학급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수하는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연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상의 경험들이 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론한다. 이상의 경험에서 엿볼 수 있는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변화가 학생들의 향상된 주권자 의식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은 자신 스스로를 주권자로 자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학생들이 그들의 삶에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결정된 바를 준수함으로써 자율과 연대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은 향상된 정치 효능감을 지니게 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들이 학급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그들 나름의 뜻을 모아 실제 현실을 변화시켜보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인지적 측면에서의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정치 효능감의 향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를 주권자로 자각할 때 정치 효능감은 향상될 수 있으며, 향상된 정치 효능감은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두 번째 연구 질문을 통해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실천함에 따라 초등학생의 주권자 의식이 행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

지에 대해 알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밝히기에 앞서 태도의 행동적인 측면이 두 가지 맥락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태도의 행동적인 측면은 먼저 적극적인 형태로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행동(behavior)으로 이해될 수 있다(Mager, 1968). 또한 태도의 행동적인 측면은 보다 소극적인 형태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성(orientation)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Ajzen, 1989). 본 연구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행동(behavior) 변화를 통해 주권자 의식으로서의 내면적 경향성(orientation)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행동(behavior)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자면, 초등학생들은 학급임원 선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학급임원의 행동 준거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학급임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뽐내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학급을 위한 봉사 일을 자발적으로 맡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학급임원들이 사용하였던 전체적이고 강압적인 말하기 방식을 버리고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학급임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선거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바를 준수하기 위하여 반성적 성찰 결과에서 벗어나는 부탁이나 요청을 학급임원에게 하지 않게 되었으며, 학급임원에게 반발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잘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 변화를 통해 연구자는 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이 함양되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서 존중의 경향성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존중은 주권자 의식을 추론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주권자 교육의 맥락에서 존중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태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주권자로서 존중할 때, 자율적 규

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되며, 상대방을 주권자적 존재로 긍정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 및 공감하여 그의 욕구나 자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함에 따라 나타난 학급임원들의 일반 학생들에 대한 행동 변화와 일반 학생들의 학급임원에 대한 행동 변화는 이러한 상호존중의 태도에 기초한 것이라 해석함이 적합하다.

<표VI-1> 초등학생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주권자 의식의 변화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의사소통</li> <li>· 적극적인 참여</li> <li>· 경청과 공감</li> <li>· 이견의 조율</li> <li>· 상호주관성의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의 확장</li> <li>· 학급 생활에 대한 성찰</li> <li>· 자율과 연대</li> <li>· 말하기 방식의 변화</li> <li>· 친밀한 학급 분위기 형성</li> </ul>



주권자 의식 변화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
주권자로서의 자각	정치 효능감 함양	상호존중의 실천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러한 주권자 의식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추동하는 교육적 경험은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 과정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학급임원 선거의 참여 절차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경험의 내용은 그러한 교육활동의 참여 절차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천한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는 ‘의견 교환하기’, ‘토론하기’, ‘대안 창출하기’, ‘투표하기’의 참여 절차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투표 활동에 임하기 전, 의견 교환하기 단계부터 대안 창출하기 단계까지의 반성적 과정을 통해 우리학급에 필요한 임원의 역할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적 성찰 과정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정치참여, 경청과 공감, 이견의 조율, 상호주관성의 형성, 사유의 확장, 학급 생활에 대한 성찰, 자율과 연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반면,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의 마지막 절차적 단계였던 ‘투표하기’에 한정되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투표 활동 이전의 반성적 성찰 활동을 절차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임원의 입후보’, ‘소견(공약) 발표’, ‘투표’, ‘당선자 소감 발표’ 순의 투표 활동의 세부적 절차에서도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에의 참여를 통해 선거의 엄숙한 분위기를 느껴보고, 다수 후보자 중에서 한 후보자를 선별해보는 경험을 하는데 그치게 된다. 요컨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는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 과정을 절차적으로 생략함으로써 학생들이 주권자 교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자: 기존의 임원 선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

무궁: 진지하게 투표해야 되는 거?

연구자: 진지하게 투표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무궁: (민망한 듯 웃으며) 말 그대로 진지하게 투표하는 거요. 웃으면 다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연구자: (웃으며) 아, 투표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

무궁 1차 심층 면담 (2021년 9월 29일)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를 내실화하고자 그것의 세부 절차 속에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 활동을 추가하려는 대안적 시도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입후보자의 소견과 관련하여 그것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공약 토론회 등의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투표 행위를 가르치고자 하는 현재 선거교육의 목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하지만 공약 토론회와 같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에서의 반성적 성찰과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서의 그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반성적 성찰이 학급임원 선거에 대한 아무런 선결 사항 없이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학급임원의 모습에 대한 공동의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내는 활동이었다면,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에서 시도되는 반성적 성찰은 유권자인 학생 개인이 여러 후보자 중 한 사람을 잘 선별하도록 돕기 위한 기능적 차원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의 선거 모습을 떠올려본다면 각 학급임원 선거가 추구하는 반성적 성찰 활동의 의미는 더욱 명료해질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돌입하기 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지도자의 모습에 대한 숙의(熟議)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이룩하는 일과 선거일을 한두 달 앞두고 유권자가 후보자들 간

의 토론회를 시청한 후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결정하는 일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성찰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 활동 중심의 기존의 학급임원 선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들의 주권자 의식을 변화시킬만한 교육적 경험을 얻기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2. 요약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를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학급임원 선거에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실천한 수박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 관찰과 연구 참여를 희망한 담임교사, 초등학생들과의 심층 면담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에 기초하여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추론 및 해석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초등학생들이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대한 차이를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그동안의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에 순응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인기나 피상적인 공약을 투표의 기준으로 하여 선거에 임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서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반성적 성찰 결과를 투표의 기준으로 하여 실제 선거에 적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초등학생들은 그들이 선거에 참여하였던 경험의 양상에 따라 각 선거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학생들이 학급임원 선거의 반성적 성찰 결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급임원들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행동 변화를 보였으며, 일반 학생들은 선거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에 어긋나는 부탁이나 요청을 임원들에게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학급 임원들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전제적이고 강압적인 말하기 방식을 버리고 권유하고 부탁하는 부드러운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일반 학생들 역시 학급임원에 대한 그동안의 반발을 멈추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 결과, 사례 학급은 이전보다 더 친밀한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에는 모종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스스로를 주권자로 자각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창출해낸 공동의 투표 기준을 실제 학급임원 선거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정치 효능감을 함양했으리라 추론해볼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실천한 결과 학급의 현실이 변화함을 경험하며 학생들은 정치참여에의 자신감과 주권자로서의 자기 효용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의 태도를 형성하였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학생들이 보인 가시적 행동 변화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주권자로 여겨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 공감, 배려하려는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권자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반성적 성찰 활동의 중요성을 깨우쳐준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수 목표로 여겨지는 주권자 교육이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 과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실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제언

### (1) 현재의 주권자 교육 실천에 대한 성찰

교육기본법 제2조는 민주시민교육을 모든 학교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제시한다.<sup>14)</sup> 하지만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그것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

14)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

인하여 체계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갈등하는 모든 입장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점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주권자로서의 시민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주권자 교육이 중요한 까닭은 주권자 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모든 입장들의 최소공통요소가 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 교육의 토대 위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변화 및 발전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자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주권자 교육이 그 본래의 목표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권자 교육은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주권자로 자각하도록 하고, 주권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이양하고, 학생들이 결정한 바가 실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가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역시 학급임원 선거 전반적인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주권자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학생들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권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을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존중하고 있는가? 물론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알려짐

---

(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모든 학교교육의 지향점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설정하였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주권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많은 주권자 교육활동들이 학생들을 주권자로 상징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급 및 학생회 회의의 주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 회의의 주제는 연초에 학교에서 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학생들은 그것에 순응하여 소극적 및 의무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바는 갖가지 이유로 인하여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 변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자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지를 기르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주권자 교육, 민주 시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가능케 한다. 주권자 교육은 학생들을 그들의 삶과 밀접한 정치적 상황에 관여시키고, 학생들이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다룸에 있어서 그들의 주권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후속 연구의 제안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주권자 교육이 지니는 중요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한 까닭도 반성적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에 따른 종속변수를 설정함에 있어 참고할만한 기존의 이론들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마치며 주권자 교육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의 결과는 주권자 교육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주권자로서의 자각’, ‘정치 효능감의 함양’, ‘상호존중의 실천’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은 학생들의 참여 의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은 학생들의 정치 효능감을 함양할 것이다’, ‘주권자 교육 실천 경험은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는 후속적인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주권자 교육에 대한 풍성한 후속 연구와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이론들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정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부여할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가능케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경선(2016).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민주법학**, 62(0), 181-217.
- 강현미·이선영·조의호·김옥진·한희택(2014). 학생 자치를 기반으로 한 선거교육 프로그램 실행연구: 교사의 협력적 실행연구 1차 수행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 69-88.
- 경기도교육청(2021).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시민되기 프로젝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부(201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42].
- \_\_\_\_\_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파주: 법문사.
- 김교현(2006). 도박행동의 자기조절모형: 상식모형의 확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243-274.
- 김명재(2006).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 정당화원리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7(1), 85-106.
- 김명정(2020). 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진단. **시민교육연구**, 52(2), 27-45.
- 김아영(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영인(2003). 정치참여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고찰. **시민교육연구**, 35(1), 39-68.
- 김영현(2020). 학생자치활동의 초등 정치교육적 함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285-304.
- 김지훈(2014). **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훈(2015). 공감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47, 1-28.
- 류태건(2011).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 **21세기정치학회보**, 21(3), 383-416.
- 박가나(2001). **학생 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경 · 이승연(2015). 초, 중, 고 학생들의 정치, 사회적 이슈 및 이슈 토론 관련 인식 조사: 학교 시민교육에의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7(2), 53-84.
- 배재정 · 정정희(2003). 유아기의 사회적 가상놀이와 상호주관성 발달에 관한 이론적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8(1), 155-175.
- 설규주 · 정원규(2020).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시민교육연구**, 52(2), 229-260.
- 신정아(2005).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참여가 학생들의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공동체 의식, 효능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인(2014). **다원 민주 사회에 적합한 인간 존중관에 관한 연구: 평가를 넘어 존재 긍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쌍철(2019).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순(2007). **중학교 학급반장의 역할수행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원순(2007). 초등사회과교육에서 정치적 판단력 증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접근법. **사회과교육**, 46(1), 107-125.
- 장은주(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서울: 피어나.
- 정승희 · 용주현(201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클래스팅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 **학습과학연구**, 7(3), 23-36.
- 정원규(2016). **공화민주주의**. 서울: 씨아이알.

- 정원규 · 김형철 · 박인혜 · 설규주 · 오재길(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 정중섭(2014). **헌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 조소영(2014).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주권의 의미와 내용. **언론과법**, 13(2), 267-288.
- 조영달(2015). **질적 연구 방법론: 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이론편)**. 서울: 드림피그.
- 조주현(1992). **국민학교 반장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순(2005).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영식(2006). **현대사회의 시민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 황미영(2020). 중·고등학생의 학급임원 경험 유형의 특성: 학생 자치활동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2(3), 271-300.
- Ajzen, I. (1989). *Attitude Structure and Behavior*. In: A. Pratkanis, S. Breckler, & A. Greenwa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Arendt, H. (1982).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김선욱 역. (2002). **칸트 정치철학 강의**. 서울: 푸른숲.
- Bodin, J. (1576). *Les six livres de la Republique*. 나정원 역. (2013).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파주: 아카넷.
- Cameron, L. D. & Leventahl, H. (2003). *Self-regulation, health, and illness*. In L. D. Cameron & H. Leventhal (Eds.), *The self-regulation of health and illness behavior*. London: Routledge.
- Campbell, A., Gurin, G. & Miller, W. E. (1954). *The Voter Decides*. New York: Row, Peterson.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Sage. 조흥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

- 지성 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Frijda, N. H. (1988). The Law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3(5), 478-493.
- Harris, M. (1968).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A history of theories of cultur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Mager, R. F. (1968). *Developing Attitude Toward Learning*. Belmont, California: Fearon Publisher.
- Rosenberg, M. J. (1960). *An Analysis of 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In: M. Rosenberg, C. Hovland, W. McGuire, R. Abelson, & J. Brehm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J. & Hovland, C. 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C. I. Hovland & M. 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Rousseau, J. J. (1762).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이환 역. (1999). **사회계약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신재영 역. (2006). **참여 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Walcott, H. F. (2008). *Ethnography: A way of seeing*. Walnut Creek, CA: AltaMira.
- Yin, R. K. (198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Beverly Hills, Calif. : Sage Publications. 서아영 · 신경식 역. (2005).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 Abstract

# A Case Stud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s in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 Focused on the Class Chair Election –

Kang, Changhu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Jeong, Wongyu, Ph. D.

Recently,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is emerging. However, the current schoo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systematically activated due to the lack of an agreed point of view on the goal, content, and method it should aim fo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irst task for vitaliz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is to find an agreement

that can encompass all conflicting positions in relation to it.

The justification for practicing sovereign education in schools is found in the context of thi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citizenship as a sovereign proclaimed by our Constitution can become a consensus mechanism that all positions related to schoo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an agree. In other words, sovereign education is the least common element of schoo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serves as the basis for systematization and vitalization of schoo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for students to grow into sovereigns in a democratic society,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capacity for reflection. This is because the decision-making actions of sovereign citizens cannot be made in a sloppy fashion or follow traditional rules, but must be mad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igh-level political judgment based on discussion among citizens. However, when sovereign education is practiced in schools, the reflective process of students is easily omitted. A typical example is the election of class chairs held every semester. Class chair elections function only as a forum for students to vote, but have long since lost their role as a forum for public debat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practiced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centering on the election of class

chairs, and examined the changes in the sovereign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it. To this end, this study posed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and the answers were used as the basis for inferring changes in the sovereign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irst, how do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 th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class chair election and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Second, how about the behavior chan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targeting a class of 6th graders of Watermelon Elementary School who practiced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observation of participation in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homeroom teacher and 14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wish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findings were found for the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ith respect to the first research ques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the two types of class chair election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and the criteria for vo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ssively participated in the ordinary class chair election and voted based on popularity without any practical criteria, whereas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and voted on the results of reflection in the class.

And with respect to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ppeared to regulate their own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flection in the class chair election, and based on the listening and empathy experienced during the reflective process, they could mutual respect that affirms the existence of other person. Specifically, class chairs abandoned their sense of privilege and volunteered to do volunteer work, and instead of tyrannical and controlled speaking, they began to use the solicitation and request method. Meanwhile, ordinary students gave up their resistant attitude toward class chairs and recognized them as more public beings, so they could better accommodate class chairs' requests.

Through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have changed their sovereignty consciousness in a positive way. This is becau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ould be able to recognize themselves as sovereigns in the cognitive aspect and improve their political efficacy in the affective aspect through the experience of making a common decision through reflection in the class and actually putting

it into practice. In addition, it is because the behavioral changes shown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are believed to be based on an attitude of mutual respect that recognizes both themselves and others as sovereig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on the sovereign education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schools without reflective process in a practical context, and in that it enables a follow-up study on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in an academic contex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that recognizes students' subjectivity will be further activated and follow-up studies on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will be continuously accumulated so as to provide a forum for diverse and rich discussions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sovereign education.

**Keywords :** sovereign education,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class chair election, sovereignty consciousness, political judgment

**Student Number :** 2020-27170